순천화상경마장 논란 재점화

마사회, 업주와 전세계약…연말께 개장

시민대책위, 토론회 개최 등 강력 반발

한동안 잠잠했던 순천화상경마장 문제가 업주와 마사회측의 계약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16일 화상경마장 추진 업체인 ㈜팔마와 전세 보증금 지급 등 전세 계약을 하고 등기를 마쳤다.

마사회는 5개월 정도의 내부 공사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연말께 화상경마장을 개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알려졌던 한국마사회측의 사업 취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순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순천 YWCA에서 투쟁보고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측이 계약 해지나 다름없는 사용승인 기간 연장 불가 공문을 보내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와의 면담때 취소 입장을 밝혀 놓고 업주와 몰래 계약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화상경마장이 순천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마는 덕암동 역전시장 채소전(옛 순천교통 부지) 부근 대지 2천283㎡, 연면적 7천904㎡(2~4층) 건물에 화상 경마장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한국마사회측은 업주가 3월말까지 시로부터 경마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었고 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객선 '고무줄 뱃길' 불편

여수~거문도 운항시간 1시간 이상씩 지연 이용객 분통

여수~거문도간을 운항하는 초쾌속 여객선이 운항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운항 시간이 길게는 1시간 이상 늘어나면서 관광객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서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의 경우 여객선운항이 지연되면서 예약한 교통편을 놓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해 도서관광기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여수지역 관광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여수~거문도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 초쾌속선이 도입되면서 운항시간이 2시간 안팎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1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여수~거문도간 초쾌속선의 실제 운항시간은 여수~나로도~초도~손죽도~거문도를 운항하던 3년 전 쾌속선과 똑같은 소요시간이다. 당시 쾌속선은 많은 기항지에 따라 직항하던 초쾌속선에 비해 40여분이 더 걸렸으며 이에 따라 요금도 3천원가량 저렴했다.

여수~거문간 항로에 초쾌속선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지만 운항시간이 3시간까지 늘어나면서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강성훈기자 kangsw@

하지만 현재 운항중인 여객선의 경우 초쾌속선인 A호가 2시간 10분, B호가 2시간으로 운항 면허를 각각 내고도 아예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요금도 3년 전 쾌속선에 비해 비싸게 받고 있다.

특히 여객운용약관상 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시 운임의 20%를 환불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문도를 관광했다는 이모씨(38·회사원)는 "백도의 절경을 관광할 겸 해서 거문도를 찾았는데 2시간이면 간다던 뱃길이 3시간 넘게 걸려 지루하고 힘들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최근 과다한 소요시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실태파악에 나섰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항지를 줄이는 등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성훈기자 kangsw@

/지역 단신/

가막만 수산종묘 174만마리 방류

여수시는 27일 5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가막만 해역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품종인 황점볼락과 자주복 등 7종의 어류 126만 마리와 해삼종묘 48만 마리 등 총174만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어류종묘 95만 마리는 이달 말까지 방류되며 자주복과 해삼은 하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류 사업은 수산자원 조성 뿐만 아니라 청정해역의 메카인 가막만 해역을 낚시의 명소로 개발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95년부터 사업비 27억여원을 들여 관내 해역에 어류와 전복 등 2천326만마리의 수산종묘를 살포해 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수	653-8444	목포	276-9200	나주	332-5544
	(686-8584)	무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광양	792-8111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보성	853-9700	완도	554-6677	장성	392-7000
순천	746-8111	영광	351-0055	담양	383-8111
고흥	833-9900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녹동	842-2121	진도	543-0100	장흥	863-8822
구례	783-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곡성	362-8111	함평	324-8111	고창	564-1919
				순창	653-6155